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4월 14일 · 제352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확장된 파나마 운하 개통으로 아시아-미동안 서비스 변화 전망
2. Milaha 항만, 하마드 항만 운영권 입찰 예정
3. 중국 해외직구 세수 개정, 관련 업계에 단기적 충격 예상
4. Allcargo Logistics, 인도에 신규 물류단지 건설 계획 발표

| 물류시장동향 |

1. 어질리티(Agility), 콜롬비아에 네트워크 확장
2. E-commerce 시장 확대로 美 도심 인근 물류센터 공실률 역대 최저

| 공지사항 |

1.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





물류정책 · 사업동향

확장된 파나마 운하 개통으로 아시아-미동안 서비스 변화 전망

- 확장된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 아시아-미동안 컨테이너 서비스를 두고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간 경쟁 심화 예상
 - Seatintel은 2016년 6월 26일 확장된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 선사들은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던 서비스 중 일부를 파나마 운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 파나마 운하는 통과선박 규모의 제한(5,000TEU)이 있지만, 아시아-미동안 서비스에서 가장 짧은 해상거리와 운송 시간을 제공
 - 반면, 수에즈 운하는 파나마 운하에 비해 항해 거리가 긴 단점이 있지만, 통과 선박 규모의 제한이 없어 컨테이너선박 대형화로 많은 서비스가 파나마 운하에서 수에즈 운하로 이전
- 현재 23개 아시아-미동안 서비스 중 14개 서비스는 파나마 운하를 9개 서비스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
 - 그러나 수에즈 운하는 대형선 통과가 가능하다는 장점 외의 이점은 없기 때문에 확장된 파나마 운하 개통 시에는 그 장점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
 - Seatintel은 홍콩 북측 지역 항만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베트남 봉타우 좌측 지역 항만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제시함
- 수에즈 운하의 통과료 인하 정책 추진 등 향후 운하 간 비용 경쟁 촉발 전망
 -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에서 미동안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선박이 다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여 아시아로 돌아가는 경우 통과료를 할인하고 있음
 - 이외에 최근의 지속적인 저유가 기조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남아프리카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선사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비용 인하의 원인임
 - 즉, 수에즈 운하는 통과료 인하를 통해 아시아-미동부 물동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확장된 파나마 운하는 전통적으로 처리하던 물동량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비용 경쟁도 저유가 환경에서 가능하지만, 유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수에즈 운하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운하 간 경쟁으로 선사와 화주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이상과 같이 확장된 파나마 운하의 개통은 운하 통과료 인하에 따른 낮은 운송요율의 형성, 운송 시간 단축 및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기항이 증가하고,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 등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 : www.lloydlist.com, 2016.4.11.

김근섭 부연구위원
051-797-4662, gskim@kmi.re.kr



Milaha 항만, 하마드 항만 운영권 입찰 예정

- 이번 입찰은 에미리트(Emirate)의 주요 상업 항만인 도하 항만(Doha Port)을 운영하고 있는 Milaha Port Services를 통해 이루어 짐
 - 카타르에서는 현재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항만 개발 사업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임
- 신(新) 하마드 항만은 카타르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에 완공될 계획임
 - 이번 공사는 2030년에 완공 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요청으로 10년 앞당겨진 2020년으로 완공 시점이 변경됨
 - 이번 항만 공사에 74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3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해군기지 및 특별 경제 구역을 개발할 예정임
- 하마드 항만의 컨테이너 시설은 3단계에 걸쳐 완공될 예정임
 - 1단계 완공 시 200만 TEU의 물동량을 수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400만 TEU를 처리할 예정임
- 이번에 건설될 항만은 로로(Ro-Ro) 운송 시스템, 벌크 및 일반 화물 시설과 더불어 해안 경비대 및 해사 지원 시설도 겸비할 예정임
 - 또한, 이번 건설 계획에는 제조 시설 및 선박 수리 서비스 허브 개발도 포함되어 있음
- ‘카타르 경제구역 3’은 신(新) 항만 부근에 시공될 특별경제구역으로서 카타르의 운송 및 무역 관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나아가 물류 및 무역을 위한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에는 하마드 항만과 메사이드(Mesaieed) 및 카타르 서부 및 북부지역을 연계할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임
 - 이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며, 대형 차량 전용으로서 시간당 3,000대의 트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 공사는 예정보다 약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임

자료 : www.joc.com, 2016.4.8.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중국 해외직구 세수 개정, 관련 업계에 단기적 충격 예상

- 지난 3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수 개정 정책을 발표함
 - 세수 개정의 배경은 중국 지역별 세관의 해외직구(B2C) 상품에 대한 수입 정책이 통일되지 않고 불명확한 데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기존 행우세(行邮税)가 세수 50위안 이하에 대해 면세 조치함에 따라 국가 세수 손실이 크기 때문임¹⁾
- 4월 8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1] 해외직구 종합세와 [2] 개정된 행우세의 2가지 세수 정책을 병행 실시함
 - [1] 세관에 주문서, 지불증빙, 운송장 전자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기존 행우세 대신 해외직구 종합세(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를 적용함
 - 해외직구 종합세는 1회 거래금액 2,000위안, 개인 1년 거래금액 20,000위안 한도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품목별 세율의 각 70%를 징수하며, 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일반무역으로 간주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 전액을 부과함
 - [2] 상품 주문서, 지불증빙, 운송장 전자서류 제공이 불가한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에는 행우세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행우세 세율을 기존 10%, 20%, 30%, 50%의 4단계에서 → 15%, 30%, 50%의 3단계로 조정함
 - 또한 4월 7일, 재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 공동으로 ‘해외직구 상품 리스트(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를 발표하여 향후 해외직구 가능한 상품을 1,142개 품목으로 제한함
- 이번 세수 개정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의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상거래 기업은 단가 상승, 취급 품목 제한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중소기업체는 도태될 수 있으며, 수입창구를 B2B와 B2C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함
 - 물류기업의 경우 세율의 전반적인 상승 및 품목(SKU) 감소로 인해 B2C 전문 수입 물류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편법 루트 이용의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직구의 편법적인 루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구매대행 혹은 홍콩 등을 통한 반입 등 편법적인 루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잠재적인 시장 진입자의 경우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세부지침이 아직 불명확한 바, 후속 조치 관망 후 시장 진입이 바람직하며,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구’의 강점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gss.mof.gov.cn, 2016.4.7 / stock.hexun.com, 2016.3.28.

김세원 연구원
051-797-4775, ksw@kmi.re.kr

1) 행우세는 여행객의 수화물과 개인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세로서, 기존 해외직구(B2C) 상품의 경우 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혜택을 적용해옴.



Allcargo Logistics, 인도에 신규 물류단지 건설 계획 발표

- 인도 뭄바이(Mumbai)에 본사를 두고 있는 Allcargo Logistics사는 최근 인도의 급격한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북부 하리아나(Haryana)주의 자자르(Jhajjar) 지역에 신규 물류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신규 물류 단지는 Allcargo Logistics사와 인도 주정부가 함께 투자하여 건설될 예정임
 - 인도 최초의 통합 물류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될 예정이며, 또한 철도 화물 터미널, 자유무역지역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자자르 지역은 주요 산업 시설들과 생산기지들이 위치해 있는 인도 북부의 주요 산업 요충 지역으로, Allcargo Logistics사는 이 지역에 신규 물류 단지 건설을 통해 고객들에게 E2E(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임
 - 자자르 지역에는 현재 화물 전용 철도 시설이 조성 중이며, 신규 물류단지는 조성 중인 화물 전용 철도 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약 24만5천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2018년 운영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음
- Allcargo Logistics사의 관계자는 “하리아나 신규 물류단지 프로젝트는 Allcargo Logistics의 사업 확장 전략 중 하나이며, 신규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인도 북부 지역 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화주들의 화물 혼재(consolidation) 작업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Allcargo Logistics사는 인도 내 물류시설 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작년 11월 착공한 인도 콜카타(Kolkata) 지역에 컨테이너 화물 처리장은 내년 완공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자와할랄네루(Jawaharlal Nehru)항만, 첸나이(Chennai)항만, 문드라(Mundra)항만, 케다(Kheda), 피트햄푸르(Pithampur), 다드리(Dadri) 지역 등에 컨테이너 화물 처리장 및 내륙 컨테이너 처리장(inland container depots) 등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3.15.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어질리티(Agility), 콜롬비아에 네트워크 확장

- 어질리티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메데인, 칼리 등 3개 도시에 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 Navemar Group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Agility Colombia는 위의 3개 도시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입 서비스, 해운/항공/내륙 운송, 보관 및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Navemar Group은 콜롬비아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및 베네수엘라 등에 진출한 지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 중 하나임
- 어질리티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 경제활동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에 거점을 마련하게 됐음
- 어질리티가 매년 발표하는 신흥시장에 대한 지표인 2016 AEMKI(Agility Emerging Market Index)에서는 미국과 콜롬비아의 루트가 전년대비 성장성이 가장 높으며, 화훼(fresh folwer), 곡물(cereal) 및 콜드체인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자료 : www.transportweekly.com, 2016.4.6.

송주미 연구원
051-797-4773, jmsong@kmi.re.kr

E-commerce 시장 확대로 美 도심 인근 물류센터 공실률 역대 최저

- 지난해 연말 미국 도심 인근 물류센터의 공실률은 6.4%에 불과함
 - 이는 15년 동안의 최저치임
 - 소매판매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류센터의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미국 주요 12개 지역 물류센터의 낮은 공실률은 소비 수요의 꾸준한 회복세와 E-commerce 시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Last mile에 대한 관심은 구매 후 즉시 수령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 센터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임
 - 아마존과 월마트는 전체 미국 전자 상거래 매출의 20~25%를 차지함

자료 : www.joc.com, 2016.4.4.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 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4. 1(금) 09:00 ~ 4. 15(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4월29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